

빛가람혁신도시 공기업 수장 인사 ‘촉각’

새 정부 출범 때 ‘자리바꿈’ 일부 교체 전망

“정치적 임명” 제외 능력 있다면 임기 보장”

“전 정권 인사 상당수” 후임 놓고 설왕설래

새 정부 들어 장관 임명 등 내각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기업 수장들의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기업 기관장들의 경우 그동안 임기와 무관하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자리바꿈’ 현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옛 정권과 친밀감을 과시했던 일부 기관장들의 교체도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입주 공기업 등에 따르면, 새 정부의 내각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각 부처 산하 기관장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옛 정권 인사 상당수가 혁신도시 공기업 기관장이나 임

원 등 정무직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들 공기업 안팎에서는 기관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임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기관장이나 임원의 경우 해당 부처 장관이 아닌 청와대에서 직접 조율을 한다는 점에서 일부 기관장이나 임원의 교체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현재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총 15개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조환익 사장은 2012년 12

월 사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4년 8개월째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조 사장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력 후보로 언론 등에 거론되기도 했으나 낙점을 받지 못했다. 조 사장은 앞으로 5개월간 사장직을 유지하면 한전 역사상 최장수 사장 진기록을 세우게 된다. 역대 최장수 사장은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종훈 사장으로, 1993년 4월부터 1998년 4월까지 5년간 사장직을 수행했다.

한전 자회사인 한전KDN 임수경 사장은 2015년 10월 임기(3년)를 시작해 1년 3개월가량의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농어촌공사 정승 사장은 지난해 10월 임기(3년)를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10개월째 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aT 여인홍 사장 역시 작년 10월 임기(3년)를 시작해 2년여가량 남기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백기승 원장은 오는 9월 임기 3년을 채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승

상각 원장이 물러난 뒤 8개월 이상 원장직 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기관장 임기가 임박했거나 기관장이 공석인 해당 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후임 기관장 인선 등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A 공기업 중간 간부 김모씨는 10일 “사장 임기가 꽤 남아 있으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후임 사장 이름이 거명되는 등 조직이 좀 어수선 하다”며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면서 공기업 임원들의 인사가 줄을 잇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 공기업 직원 이모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무직 자리로 여겨지는 공기업 임원과 주요 간부들의 인사가 단행됐듯이 새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정치적으로 논란이 크게 없는 기관장 임기는 보장해주시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엇갈린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윤장현 시장, 무안공항 활성화 앞장 왜?

“관광 등 호남 발전 위해 지자체 힘 모아야” 日 기타큐슈 증편…中 광저우 노선 제안도

윤장현 광주시장이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전세기 운항에 노력하는 등 무안공항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시는 10일 “일본 기타큐슈 관계 공무원이 이날 광주시청을 방문, 무안공항에 전세기를 띄우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무안공항에서는 양 지역을 오가는 전세기가 주 1회 운항하고 있는데 이날 논의를 통해 오는 10월 주 3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내년 1월까지 무안공항~기타큐슈 간 항공 정기편을 운항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운영된 전세기의 경우, 기타큐슈에서 빈 항공기가 무안공항으로 왔다가 한국 손님을 태워가거나 일본에서 귀국하는 한국 승객을 주로 태웠는데 올 10월부터는 일본에서도 관광객이 무안공항을 찾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항공 편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해 호남의 관광 산업

을 살릴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달 중국이 라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하계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광저우 당 간부와 만나 무안공항~광저우 간 전세기 및 직항 노선을 제안했고, 중국 한 항공사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양국 간에 논의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조만간 중국 측에 정기노선 취항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실무진을 현지로 파견할 방침이다.

윤 시장은 이처럼 무안공항 활성화에 나서려는 것은 무안공항을 통해 관광객이 몰려오면 전남지역 뿐 아니라 광주와 전북 관광 산업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 시장은 “호남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주요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광주와 전남·북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저임금 9차 회의도 파행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0일 다시 열렸지만 지난번 회의에서 퇴장했던 중·소상공 위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또 다시 파행으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지만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등 중소기업·소상공 위원 4명이 불참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열린 8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요구안이 부결되기에 앞서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투표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후 김 회장은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이후에도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나서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중·소상공 위원 5명은 남은 회의에 나오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5명 위원 중 김재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이날 회의에 나왔다.

김 회장은 “김재락 위원은 다른 중·소상공 위원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업종별 실태조사 요구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연구용역비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중·소상공 위원들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사용자 측 위원들이 앞으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유관순함 시험 운항 방위사업청이 10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에서 장보고-II급(214급) 잠수함인 유관순함 인도식을 열었다. 해군에 인도된 유관순함은 5개월 동안 임무 수행을 위한 승조원 훈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사진은 시험 운항 중인 유관순함. /연합뉴스

GIST, 암·비만 억제 장내세균 발견

박한수 교수 연구팀

광주과학기술원(GIST) 연구팀이 암과 비만을 억제하는 특성을 가진 장내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을 발견했다.

10일 GIST(총장 문순환)에 따르면 의생명공학과 박한수 교수 연구팀이 암에 걸린 쥐와 비만증상이 있는 쥐에 대한 실험

을 거쳐 이같은 연구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장내 유익한 균인 프로바이오틱스를 배양해 암 모델 쥐에게 단독 투여했을 때 항암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면역 항암제와 함께 투여했을 때 항암 치료 효과를 증진하는 군주도 찾아냈다.

비만 모델 쥐를 통해 고지방 사료와 프로바이오틱스를 병용 투여했을 때 비만 발생이 억제되는 군주도 발굴했다.

면역 항암제에 프로바이오틱스를 병행해 항암효과를 증진하거나, 면역 항암제 단독투여로 효과가 없었던 환자에 대해 프로바이오틱스 병합투여로 항암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 사망률 1위인 암과 식습관의 서구화로 인한 비만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 교수 연구팀의 성과는 미래장조과학 부 주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활용 신구치료 기술 개발 과제(연구비 50억)에 채택됐다. /윤영기자 penfoot@

“흑산공항 건설 서둘러 주오”

신안 주민 6천여명 청원서

신안 주민들이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흑산권역 개발 추진협의회는 지난 6~7일 청와대, 국정자문기획위원회, 국회, 정당 등에 흑산공항 조기 착공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신안 군민 6218명이 서명했다.

주민들은 청원서에서 “흑산도는 서남해안 해상교통 요충지지만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해 기상이 나쁠 때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이라며 “주민들은 풍랑주의보나 안개로 육지와 교통수단이 끊기면 응급상황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의결이 보류되고 현재까지 후속 심의 일정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수요 창출 등 신

안군의 미래를 바꿀 흑산공항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흑산공항은 2020년까지 토지 보상비와 공사비 등 국비 1833억원을 들여 신안군 흑산면 예리 일원에 1200m 활주로와 부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50인승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금호 컨소시엄이 기본 설계를 마치는 대로 실시 설계에 들어가 착공할 예정이지만 사업 추진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필수적이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자연환경 훼손 등 반대 여론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울지방항공청이 조만간 환경부에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말 착공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다소 어두운 분위기가 감지되지만, 지역 핵심 현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신속히 추진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생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용봉동 3층 대로변상가 대1,100㎡ 매28억(840만/평, 웅22억 포함)
6. 노대동 3층 상가건물 대831㎡ 매26억원(보1.5억 월,222 포함)
7. 일곡동 6층 상가건물 대330㎡ 매22억원(보2.4억 월9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신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용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도천동 하남산단9번로 광산C 입구 공장2동 대1,218㎡ 매12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일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부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안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흥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

- 광산구 장덕동 양우내안에 5층
- 초·중·고 바로 인접
- 전망 좋음 놀이터 솔무공원 전망
- 로얄동 4베이 정남향 일조권 최상
- 매매 2억 6000만원

문의 **010-6496-2525**